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무예 애호가 여러분,

2024 글로벌 무예 포럼이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함께한 깊은 여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여정은 무예를 단순한 자기 방어나 신체 능력으로만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의 정체성, 가치관, 미래와 깊이 얽혀 있는 생동감 있는 문화적, 사회적 힘으로 재조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유산으로서 무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아래 모였습니다. 각 발표와 토론은 무예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예는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며, 사회 발전의 강력한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무예의 문화적 유산

카포에이라의 리드미컬한 동작에서 춤, 음악, 무예가 독특한 문화적 표현으로 어우러지고, 중앙아시아 유목민들 사이에서 강인함, 인내, 협동심을 상징하는 스포츠인 콕보루(Kok-Boru)에 이르기까지, 무예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고 역사를 기념하는 문화적 축제입니다.

브라질에서 노예로 잡혀온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에서 탄생한 카포에이라는 회복력과 창의성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억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유연한 동작을 통해 자유와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이 무예는 아프리카와 브라질 식민지 요소의 문화적 융합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저항과 축제의 한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전통 말타기 스포츠인 콕보루는 이 지역의 유목민 유산을 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고 용기, 협동심, 자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사회적 행사입니다. 카포에이라와 콕보루 모두, 무예가 공동체의 가치, 인내, 그리고 연대를 전달하는 강력한 문화적 수단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몽골의 부흐 레슬링, 캄보디아의 쿤 보카토(Kun Lbokator), 그리고 튀르키예의 전통 오일 레슬링 등 우리는 무예가 한 민족의 역사, 회복력, 창의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의식과 스토리텔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을 형성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풍경을 반영하며 진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관습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전통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뿌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하여,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과 발전

하지만 무예는 단지 역사적이거나 문화적 관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적응력이 뛰어나고 역동적인 도구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무예가 청소년 역량 강화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크 티봄의 기조 연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무예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예를 통해 규율과 존중을 배우고, 감정 조절과 자존감을 높이며, 무예는 청소년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이집트에서 청소년들이 유산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삶의 기술을 개발하는 타흐팁(Tahteeb)의 사례는 이러한 전통이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태극권의 부활은 무예가 신체적,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며,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연대를 모두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예가 취약함을 강점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들었고, 이는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단결과 평화 구축

이번 포럼에서의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는 무예가 평화와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힘을 상징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분열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가장 깊은 분열도 상호 존중과 문화 교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튀르키예 전통 활쏘기의 부활은 성 평등을 촉진하고 젠더 평등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녀가 거의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조사 결과는 무예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무예는 명예, 존중, 규율을 중시하는 만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유목민 게임에서의 국가 간 교류나 실랏(Silat)과 같은 무예의 세계적 매력은 이러한 전통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공유하는 인류애를 강조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의 논의와 발표는 무예가 단순한 전투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예는 문화적 보물이며, 사회적 도구이자 정체성과 평화의 원천입니다. 이 포럼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러한 전통이 지닌 거대한 힘을 마음에 새

기길 바랍니다. 이 힘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치유하며, 문화와 세대를 초월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중요한 대화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무예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계속 지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세계적 문화유산의 생생한 일부로 남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